

무안군 내년 예산 6천229억…‘두터운 복지’ 방점

예산 30% 사회복지 투입 취약계층 보호

세입 감소 대비 고강도 혁신…효율성 강화

농수산·지역개발 등 민생 경제 활력 집중

무안군이 민생 경제 활력 회복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7일 무안군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안으로 총 6천22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6

천24억원 대비 105억원(1.72%) 증가한 규모다. 군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민선 8기 핵심 가치 실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6천629억원, 특별회계는 10.69% 감소한 167억원이다.

세입 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606억원(8.49%), 지방교부세는 2천919억원(5.07%)으로 늘어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2천318억원(1.65%), 조정

교부금은 110억원(22.31%)으로 줄어들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 예산을 분석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1천833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597억원 ▲ 생계급여 140억원 등이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군의 의지를 반영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951억원(15.7%)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71억원 ▲스마트 농수

축산업 육성 사업 등이 포함돼 농어가 소득 증대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꾀한다.

이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13억원(8.5%)이 편성됐으며, ▲청계면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 74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32억원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들이 담겼다.

무안군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체육시설 투자 확대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후 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농수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등에도 힘쓸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군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와 민생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김상호 기자

나주시, 5천400억 국고 확보…에너지도시 도약 발판 마련

과학관·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본격화

핵융합 초전도 도체 설비 등 대거 반영

문화·관광·정주·복지 등 모든 분야 확대

나주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 확정과 함께 최대 규모의 국고 확보 성과를 거두며 미래 에너지 전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적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온 결과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에너지, 문화, 농촌, 정주, 복지, 사회기반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비를 대폭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에너지 전문과학관과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등 대형 국책사업을 포함한 전 분야 국고 예산을 대규모로 확보하며 미래 에너지 전략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다.

정부 예산에 기본계획 설계비가 반영되며 총



윤병태(오른쪽) 나주시장과 신정훈(가운데) 국회의원이 김민석(왼쪽) 국무총리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이 확정됐다. 부지 확보와 타당성 검증을 완료한 가운데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 현장형 전시와 교육, 연구가 연계된 국가 대표 에너지 과학관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차세대 전력망 인재 양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사업에 내년도 국비 245억원이 반영되며 본격 추진이 확정됐다.

‘핵융합 실증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에 국회 증액 30억원이 포함돼 총 120억원이 반영되며 핵융합(인공태양) 핵심 기술 확보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

또 전남 기독교 선교의 시작점인 나주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6억원,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기본계획 5억원, 예산대교 재가설 설계비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촌공간정비, 농촌협약, 노후 상하수도 정비, 나주콜버스와 100원택시, 스마트 경로당 운영 등 시민 체감형 사업도 폭넓게 반영됐다.

특히 광주 강진 고속도로(1단계) 668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1천16억원 등 광역교통망 확충 예산도 안정 반영되며 광역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윤병태 시장은 “에너지 전문과학관, K-그리드 밸리, 핵융합 기술 인프라 등 핵심 미래사업이 동시에 반영된 것은 나주가 미래 에너지 전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는 상징적 성과”라며 “대형 사업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미반영 사업은 보완해 재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해운조합 목포지부 “희망 키우는 든든한 응원 되길”

강진군, 국민영양관리 우수기관 ‘복지부 장관상’

예비 중학생 입학 준비금 기탁

교복·학용품 등 물품구입 활용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는 “최근 동명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 예비 중학생을 위한 입학 준비금 180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오는 2026년 중학교에 진학하는 청소년 6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지원된다. 기탁금은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 통장으로 전달되며, 교복이나 학용품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쓰일 예정이다.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는 해운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매년 소외계층 지원과 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최종진 본부장은 “중학교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며 “우리의 나눔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만 동명동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미를 담고 있다.

‘영암여행 1+1’은 관광객이 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하면, 방문 회차별로 모바일 지역화폐(월출페이) 또는 온라인 ‘영암몰’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이번 이벤트 기간 소비 인정 금액과 환급 비율을 2배로 늘렸으며, 1인 여행객은 10만 원, 2인 이상 팀은 20만원까지 소비 금액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한급률도 대폭 상향됐다. 기존에는 팀 기준

최대 지급액이 3회 합산 24만원 수준이었으나,

방문 회차별로 ▲1회차 50% ▲2회차 70% ▲3회차 100%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한 번에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3회차 혜택을 모두 받은 관광객의 경우 ‘12월 특별 회차’를 통해 이달 중 다시 방문하면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12월 지급되는 월출페이의 유효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내년 1월31일까지로 한 달간

군은 지역 영양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취약계층 영양 지원 확대 ▲주민 참여형 비단 예방 관리 사업 ▲맞춤형

식생활 교육 등을 지역사회 영양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건강 지표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자들의 노력이 함께 빛어 낸 결과”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영양 정책을 더욱 강화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연장해 사용 편의를 높였다.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전용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숙박·식사·체험 등 소비 내역을 인증하면 된다.

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설경이 아름다운 월출산과 영암강, 구림마을 한옥 등 영암의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두 배로 커진 혜택도 행운과 함께 기다린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설경 아름다운 12월 ‘영암여행 1+1’ 혜택 두 배로 쏟아진다

‘설산가산’ 이벤트…최대 20만원 환급

영암군이 연말연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12월 한 달간 지역화폐 지급 행사를 진행한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영암에서 즐기는 설산가산(雪山加算) 이벤트’를 진행, 기존 ‘영암여행 1+1’ 혜택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눈 덮인 월출산의 절경을 보려온 관광객에게 혜택을 더해준다는 중의적인 의

미를 담고 있다.

‘영암여행 1+1’은 관광객이 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하면, 방문 회차별로 ▲1회차 50% ▲2회차 70% ▲3회차 100%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한 번에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3회차 혜택을 모두 받은 관광객의 경우 ‘12월 특별 회차’를 통해 이달 중 다시 방문하면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12월 지급되는 월출페이의 유효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내년 1월31일까지로 한 달간

영광군이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돋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9일까지 ‘2026 귀농·귀촌 어울림마을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입 10년 이내의 귀농·귀촌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전입 주민과 원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선정된 마을에는 최대 1천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마을 진입로나 나무 식재나 꽃길 조성 등 경관 개선(1천만원 이내)과 마을을 잔치, 환영 행사, 멘토·멘티 결연, 재능 기부 등 주민 융화 프로그램 운영(500만원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귀농·귀촌 가구가 포함된 관내 마을이며, 전입 가구 수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신청 서류를 갖춰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이 마을의 일원으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갈등은 줄이고 정은 나누는 따뜻한 영광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